금주의 말씀

말씀 : 누가복음 7:11-17

심재권 목사
무지개교회 담임

나에게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

우리 주위를 보면 상처로 인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상처를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저런 모양의 상처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상처를 받기도 하고 때론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상처 중에 특히 사람관계로 인해서 받는 상처가 많습니다.

부모와 자녀간의 상처, 형제와 형제간의 상처, 부부간의 상처, 직장 동료와 직장상사 때문에 받는 상처, 심지어 교회에 와서도 상처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물질관계로 인해서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돈과 선물을 주고 받을 때 상처를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처한 환경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왜 나는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지 않았을까?

열악함과 열등감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다가 상처가 심해지면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더 심해지면 우울증이 생기고 더 심해지면 내가 살아서 무엇하냐 차라리 죽자하고 생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까지 생깁니다.

오늘 본문은 상처로 가득한 여인을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이 예수님은 여인에게 다가오셔서 상처를 싸매시고 용기를 주시고 소망을 주십니다.

이 소망의 예수님을 바라 보십시다.

오늘 본문의 여인의 삶을 한번 조명해 보십시다. 과거나 현재나 남편과 사별하고 산다는 것은 정말 힘든 삶입니다.

남편을 바라보고 사는 여인이 갑자기 사랑하는 남편이 죽자 절망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절망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아들이 있기에 정신을 차려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는 아들 하나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아들마저도 여인의 곁을 떠나 죽고 맙니다.

남편의 죽음의 충격도 다 가시기 전에 또다시 아들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참으로 힘든 인생입니다.

절망의 호수에 빠져버린 여인을 가까운 친구들이 와서 위로합니다. 친척들이 위로합니다. 동네 사람들이 위로합니다.

그런데 그 위로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더 절망적인 것은 아들의 장례행렬이 나인성문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네 밖을 떠나니 더욱 소리쳐 웁니다. 이제 가면 언제오나?

성 밖에 나가면 영원히 돌아오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 울부짖습니다.

애통의 행렬이요, 좌절의 행렬입니다. 낙심과 슬픔으로 가득한 절망의 행렬이 성문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한 무리가 성문을 향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무리입니다. 이 무리는 예수님이 계시기에 기쁨이 있고, 행복과 소망이 넘쳐납니다. 절망의 행렬과 소망의 행렬이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절망의 행렬을 보고 계십니다. 주께서 그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울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씀은 누구나 함부로 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직 여인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뿐이십니다.

울지 말라는 말씀 속에 모든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예수님만이 너의 절망을 바꾸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고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니 죽었던 청년이 일어나서 앉고 말도 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어머니에게 인계주십니다.

소망을 인계 주신 것입니다.

장례의 행렬이 갑자기 소망의 행렬로 바꾸어 졌습니다. 슬픔과 울음이 그치고 기쁨과 웃음소리가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소망을 주십니다. 이런 저런 일로 인해서 생긴 상처들과 인생의 문제들을 예수님께 모두 맡깁시다.

나를 주목하시고 계시는 예수님이 내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의 호수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 나를 찾아 오셔서 건져주시고 나에게 소망을 인계주십니다.

해바라기가 하루 종일 해를 바라보며 살 듯이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며 사십시다.

어머니가 산고의 고통을 이기며 피를 흘려가며 자녀를 낳았기 때문에 그 자녀를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산고의 고통을 치루시고 보혈의 피를 아낌없이 흘려주셨기에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사망 권세 깨트리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산소망이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미술대전 특선 작가 김창남 화백 그림성경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102. 성도의 특권(로마서 8:1~39)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제 더 이상 정죄가 없다는 사실은 그리스도 예수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형언할 수 없는 특권이자 위로가 아닐 수 없다.이 특권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서 오는 것이다. 그들이 믿음을 통해 그분과 연합한 덕분에 이처럼 안전을 확보한 것이다. 이들은 마치 도피성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으며 따라서 보복자의 피에서 보호를 받는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율법에 대해 이루신 속량에 관계된 이들이기에 더 이상 정죄가 있을 수 없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이들을 정죄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들을 두고 한껏 기뻐하시는 것이다(마17:5).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사죄와 새로운 성품을 받으며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것이다. 곧 죄의 죄책과 죄의 능력에서, 율법의 진로와 육신의 지배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되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성령의 법 아래 놓이게 되었으니 이 법은 영적인 생명을 주어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는 자격이 된 것이다. 그리고 이 놀라운 특권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놀라운 은총이다.

/그림=김창남 화백 · 글=김승원 목사

교육

홍기범 교수
· 한국창조과학회 광주전남지부

종교전쟁(17)

로저 윌리엄스(1603-1683)는 원래 정교도 목사였으나, 매사추세츠의 강제적 신앙과 국가권력의 종교 개입을 강하게 비판하다가 식민지에서 추방당한 후, 인디언들로부터 땅을 매입해 로드아일랜드 주와 프로비던스(Providence)시를 세워(1636), 완전한 정교분리를 시행하였다.

당시의 영국 식민지인 13개 주에서, 완전한 정교분리를 시행한 로드아일랜드와 종교에 관용적 종교정책을 유지한 펜실베이니아 주(퀘이커교도인 윌리엄 펜이 설립) 외의 다른 주들에서는 온전한 종교분리는 시행되지 않았다.

1791년 연방정부 차원의 정교분리가 법제화된 것은 로드아일랜드의 정교분리 모델을 따라 버지니아 주의 토마스 제퍼슨(1743-1826)과 제임스 메디슨(1751-1836)에 의해 완성되었다.

로저 윌리엄스가 로드아일랜드와 프로비던스를 창설하고 정교분리를 시행한지 155년 후에, 연방 차원의 정교분리가 완성된 것이다.

미국 역사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이단종파 및 신흥종교 등을 법으로 제재해야 한다는 국가적, 사회적 압력에 대해 단호히 반대한 세력들은 인본주의자들 뿐 아니라, 정통 기독교 사상가들 중에도 있었다.

사회적 지탄을 받는 이단이라 하더라도, 정부가 종교의 정통성을 따지기 시작하면, 언젠가는 국가 권력의 칼날이 자신들에게도 향할 수 있다는 역사적 경험으로부터 교훈을 얻은 것이다.

어느 나라라도 이단으로부터 피해를 받지 않는 나라는 없다. 그러나 정부가 나서서 이단을 규제하게 되면, 그 칼날이 나에게로 향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 그러므로 자신의 보수 정통 신학이나 신앙을 자랑하지만 말고, 교회는 성도들을 바르게 가르쳐서 이단의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하고, 성도들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얻도록 스스로도 노력해야 한다. 하나님 앞에서는 배우지 않아서 몰랐다고 하는 것은 핑계가 되지 않는다.

이단의 불법 행위나 인권유린 행위에 대해서는 국가의 형사법 등으로 다스릴 일이다.

정교분리를 제대로 실현하고 지키기 위해서는 "의회는 특정 종교를 국교로 정하거나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으며, 표현의 자유, 출판의 자유, 또는 집회의 자유나 정부에 진정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는 《미국 수정헌법 제1조》처럼, 어떠한 이유로도 표현의 자유, 출판의 자유, 집회의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자유민주주의와 정교분리는 같이 가야 한다. 자유민주주의 없는 정교분리(종교의 자유)가 있을 수 없으며, 정교분리(종교의 자유)가 없는 자유민주주의 또한 있을 수 없다.

다시 말하자면, 표현의 자유, 출판의 자유, 또는 집회의 자유가 없는 종교의 자유는 있을 수 없으며, 종교의 자유가 없는 표현의 자유, 출판의 자유, 또는 집회의 자유도 있을 수 없다.

《자유민주주의와 정교분리 체제의 이이러니와 현실》 미국에서 확립된 자유민주주의와 정교분리 체제는 서구 사회를 넘어 (공산 전영과 신정국가를 추구하는 일부 이슬람권을 제외한) 세계 각국으로 전파되었다. 사상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는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핵심 가치로 자리 잡았다.

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내재적 아이러니: 자유민주주의와 정교분리 체제는 스스로 역설적인 한계를 안고 있다. "자유민주주의와 종교의 자유를 부정하는 사상이나 종교조차도 규제하거나 처벌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체제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반체제적 사상이나 타락한 종교적 주장이라 할지라도 사전 검열이나 물리적 처벌을 가하기 어렵다. 법과 제도로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국가라 할지라도, 특정 지역이나 사회 공동체의 보이지 않는 압력과 집단적 동조 현상으로 인해 실질적인 신앙의 자유가 제한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한다.

② 강제적 규제의 위험성과 한계: 이상적인 기독교 신정국가를 건설하여 비진리와 그릇된 사상을 법으로 봉쇄하면 좋은 세상이 올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역사는 "강제와 규제로는 절대로 영혼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중세 로마 카톨릭과 종교개혁 교회의 정교일치 또는 신정체제 사례에서 보듯, 공권력을 동원한 사상과 종교의 봉쇄는 진리를 수호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도 할 수 있을지 모르나, 또 다른 형태의 폭력과 무해, 인권침해로 귀결될 가능성이 상존한다.

외부필자의 원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교회건물 매매 · 임대

광고 문의
T.062) 367-9109
F.062) 367-9108

※ 예배당, 기도원 등 교회 관련 부동산 매매 및 임대광고란입니다.

교회당 임대
· 위치 : 동구 필문대로 142 /2층
· 면적 : 35평
· 금액 : 보증금 300만/월45만
※비품대 있음 ※시설 완비
※조정가능
010-2738-7277

교회당 매매
· 위치 : 광산구 수완동 1243, 1244
· 면적 : 대지 166평
건축면적 204평 3층
· 금액 : 23억
※태양광 6K / 도시가스
※이전으로 인해 매매합니다.
010-6206-7042

교회임대
· 위치 : 임방울대로 142-10(삼성빌딩4층)
· 면적 : 82평 / 바로 사역가능
-교회, 유아실, 서재, 교육관, 교제실
※각 방 에어컨 설치 ※올 리모델링
※상가분리사용(타업종)가능
· 금액 : 보3천만/월120만원 or 보5천/월100만원
※월세 조정가능
010-5514-1158

수양관 급매
· 위치 : 장성군 북일면 솔재로
(고창석정온천, 편백숲 5분거리)
· 면적 : 1200평
-교회 3층 -휴게실, 숙소 3층
-단독 2채 -저온창고, 정자
· 금액 : 상담후 결정
010-7924-8291

교회임대
· 위치 : 북구 서방로 172번길 10-7, 2층
· 면적 : 20평
· 금액 : 보증금 300만원 / 월 25만원
※권리금 있음 (성물 및 시설)
※주차장 있음
010-6254-8462

교회매매
· 위치 : 북구 연양로 7번길 51-31
· 면적 : 대지 132평, 도로 15평
1층-예배당 35평
2층-사택 37.5평
· 금액 : 9억3천만원(증축가능 / 조정가능)
010-7653-8337

예배당 건물 매매
· 위치 : 광산구 사암로(대로변)
※우산동, 소촌동, 신촌동이 교차하는 큰 사거리 인근
· 면적 : 대지 121평, 연건평 110평
1층-60평(사택,식당,교육관)
2층-50평(예배당, 120~150석)
· 금액 : 8억4천만원
010-2679-4934

교회 건물 매매
· 위치 : 광산구 신창로(신창지구)
· 면적 : 대지 67평 건평 80평
1층-예배당 40평 2층-사택 및 식당 40평
부속건물- 중 이층 유아실, 방송실
· 금액 : 7억원
※리모델링(친환경 황토 및 편백)
010-9661-9099

교회 임대
· 위치 : 북구 중흥동 806-13(2층)
안보회관 건너편
· 면적 : 35평
· 금액 : 보증금 1,000만원 / 월60만원
010-7129-0281

교회 임대
· 위치 : 북구 군왕로 159-1 / 2층
· 면적 : 40평
· 금액 : 보증금 1,000만원 / 월35만원
※권리금 있음 ※깨끗하고 위치도 좋음
010-8884-2988

교회건물매매
· 위치 : 북구 설죽로 471번길 77 일곡사거리
북광주우체국 옆-(전철2호선 일곡사거리역 옆)
· 면적 : 대지-72평, 건평-110평
1층 주택 30평, 교육관 및 사무실 25평 (화장실별도)
(1층 주택과 교육관 도시가스 보일러 설치됨)
2층 교회 본당 40평
3층 유아실, 방송실 15평 (십자가 대형 철골 종탑)
· 금액 : 건물 및 교회 비품포함 4억 5천만원
010-2518-8291

교회 매매
· 위치 : 북구 운암동 대자로 87 2층
· 면적 : 123.2㎡
※뒷 빌 10평 별도로 있음
※1층같은 2층(공간 넓고 자유로움)
· 금액 : 2억원 ※살림 가능
※성물, 음향시설, 기타 생활용품 인수가능
010-8609-7224

교회 임대
· 위치 : 북향동사무소 맞은편
(목포엘림수양관)
· 면적 : 40평 (3층)
· 금액 : 보증금 3천만원 월44만원
※조정가능
010-5302-3389

교회 매매
· 위치 : 북구 청소년수련관 부근 3층
· 면적 : 대지 56평
1층 교회 2, 3층 주택
· 금액 : 6억 3천만원
※성구 일체 포함
※수리 후 건물 깨끗
010-8210-5005